

HOURLY ART

(에세이 다음 페이지)

(HOURLY ART라는 페이지 다음)

사람 객관적-시간당 예술

서울, 광주,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사이

2011년부터 시작된 People Objective 프로젝트는 김홍석이 미술가로서, 소속된 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과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가깝게 관계된 '사람들'을 자신의 작품에 초대하면서 시작된다. 그의 초대(또는 고용)에 응한 '사람들'은 배우, 도슨트, 비평가,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퍼포먼스 중심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배우 중심적(People Objective-Of Ordinary Art, 2011), 도슨트 중심적(People Objective-Wrong Interpretations, 2012), 비평가 중심적(People Objective-Good Critique, Bad Critique, Strange Critique, 2013), 그리고 노동자 중심적 관점에 의해 완성되었다.

작품 PEOPLE OBJECTIVE – Hourly Art 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김홍석의 지시(요청)에 의해 걸레질, 사포질, 붓질과 선긋기를 통해 드로잉, 회화, 조각 등을 완성하였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 길게는 30일 짧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김홍석은 인력사무소에서 제시한 임금기준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였다. 김홍석은 노동자들의 작업에 의해 미술품을 얻게 되고 노동자들은 비교적 손쉬운 육체 노동을 통해 임금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양쪽의 평등한 협업적 구조가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 과정에 위한 노동 고용상태를 보여준다.

PEOPLE OBJECTIVE – Hourly Art

Seoul & Gwangju, KOREA, November 2013 – March 2014

(영문, 번역요망)

(다음이 검은색 벽에 걸려질 회화 4점이 있는 사진 페이지입니다.)

Completed Imperfectness

(이 페이지는 카페트(실리콘으로 작업한 바닥작품) 작업사진 다음 페이지 입니다.)

완전한 미완성

-DIN A series 2013

-Elaborate diagrams for intended impossible completeness-A0,A1,A2,A3,A4, 2013

이 작품은 언어가 있음에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도면이 있어도 제작하기 불가능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입체작품이나 설치작품은 완성된 결과물이 작품으로 종결되지만 이를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많은 도면이나 드로잉은 작품 완성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게 된다. 미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건축물, 선박, 탱크, 가구, 기계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면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는 대부분 완성될 주체를 위한 도구로써 기능한다. 김홍석은 도면, 드로잉이 갖는 특수한 의미를 보다 드러내고자 도면 중심의 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우리 주위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종이를 구한 후 특정한 규칙 없이 구긴다. 그는 구겨진 상태가 완성된 상태라 가정하고 구겨진 상태의 종이를 다른 재료로 재생산하기 위해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다. 엄청나게 복잡한 도면이 완성되지만 제작을 의뢰 받은 어떤 이가 다시 김홍석이 구긴 종이와 똑같이 제작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홍석은 주체적 대상 또한 상대적이고, 보조적 역할의 대상 또한 동등한 주체성이 있음을 도면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야기한다.

“형태의 완전함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완성의 단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완전함과 우연적 변형이 형태의 완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복제하여 생산된 건축물이나 기계들은 그 계획과 과정이 송고하여 공동체로부터 공동의 찬사를 받게 되지만, 다시 재현할 목적이 아니거나 추측이 불가능한 계획에 의해 완성된 구조물의 경우 소속공동체의 미적, 정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 받기도 한다. 완전함은 완성이 아니다. 형태의 왜곡과 즉흥적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것 또한 완전한 완성이라고 정의한다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만약, 어떤 이가 경미한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졌다면 그는 원래의 상태의 형태로 복원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은 완전함에 대한 인간의 통념이자 사회적 학습의 결과일 것이다. 도면에 의해 잘 만들어진 이 작품의 외형에 변형을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작품을 위한 도면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9년, 김홍석의 작업노트에서

Completed Imperfectness

-DIN A series 2013

-Elaborate diagrams for intended impossible completeness-A0,A1,A2,A3,A4, 2013

(영문, 번역요망)

(기존 그대로 DIN A Series 작품들과 Elaborate diagram.....작품 사진이 나열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위치)

(GOOD ART 의 제목을 아래의 제목으로 바꿉니다.)

Subsidiary Construction

2008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재료와 형태에 의한 미술의 정치적 태도와 윤리적 정치성에 대한 것이다. 김홍석은 자신의 스튜디오에 있는 포장된 상태의 작품을 보고 그것은 실제 작품과 동일한 또 다른 주체적 대상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대하는 사물이나 물건은 존재로써 가치나 의미가 평등하다 할 수 있으나 미술 전시에서 작품이 주된 주체이듯 모든 개체는 정치성과 사회성에 의해 판단되거나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미술가로부터 미술적 재료로 선택된 돌, 금속, 목재, 캔버스, 버스가 내포한 재료의 정치성과 현대 미술가들이 선택한 일상적 오브제에 나타나는 태도의 정치성에는, 두 경우 모두 경계가 명확한 주체적 대상을 지시한다. 김홍석은 이러한 위계적 상황 즉, 주체와 주변이라는 이원적 대치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주변적 재료를 주체화한다. 미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 사무실의 벽면에 뒤에 설치된 스티로폼, 상품을 담은 종이상자, 쇼핑 물품이 담긴 비닐봉지 등과 같은 주체적 대상을 보조하는 사물들은 김홍석의 작품의 주된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부자재(副資材, subsidiary materials)를 불리는 비닐봉지, 종이박스, 비닐천, 각목, 합판, 스티로폼은 형태, 구조, 조합을 통해 김홍석의 입체 작품으로 확장된다.

“길거리에서 흔히 있는 쓰레기 봉지는 다수에 의한 협업의 결과가 대부분이다. 어떤 이가 버린 쓰레기 봉지는 길을 걷던 보행자에 의해 다시 그 존재의 형태와 의미가 변형된다. 예를 들어 어떤 보행자가 다 마신 음료수 병을 길 거리에 있는 쓰레기 봉지에 구겨 넣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봉지에 위에 또 다른 쓰레기 봉지가 올려질 때 그 형태는 풍부한 우화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협업은 협업자들 간에 서로 모종의 합의(consensus)가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즉흥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즉흥적 결과는 진정한 사회적 합

의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김홍석의 작업노트에서

“The landscape decorated by plastic bags that have been casually tossed aside can be seen as a kind of a collaborative project by the public, where the story of the material can change depending on an anonymous passerby. For example, a person may decide to stuff the bag left on the street with a soda bottle to throw it away - and thus the material's meaning and form will be unexpectedly affected, allowing for a rich allegory to be created. Finally, because there are no set guidelines for the use of plastic bags, its narrative is spontaneous and can therefore be seen as a true agreement.”